

# 희망미소

[www.kclf.org](http://www.kclf.org)



Korea Childhood Leukemia Foundation

재단법인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 나눔은 행복한 삶의 또 다른 선택입니다.



손경익

NH카드 사장

어느덧 겨울이 성큼 다가와 차가운 날씨가 옷깃을 여미게 합니다. 그러나 며칠 전 본 영화 한 편이 저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였습니다. 중국집 배달부로 일하며 받는 70만원의 급여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5명의 어린이를 후원하다가 배달 중, 교통사고로 생을 마감한 김우수씨의 삶을 그린 '철가방 우수씨'라는 영화였습니다.

김우수씨는 나눔은 일회성 행사가 아니며, 행복한 삶의 또 다른 선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기업의 나눔경영 또한 일회성 행사가 아닌 지속가능한 생존을 위한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NH농협은 1961년 창립 이후 농업인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더 나아가 사회적 약자를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NH농협카드는 '러브트리카드'를 출시하여 소아암 어린이들의 조혈모세포이식비 지원을 시작으로, 올해는 오랜 치료기간 동안 겪게 되는 소아암 어린이와 가족들의 정서적 어려움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후원하였습니다.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꽃을 피우는 매화처럼, 소아암 어린이들이 어려운 치료과정을 마치고 건강한 모습으로 새로운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NH농협은 앞으로도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 지면을 통해 나눔을 실천하는 많은 분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 너의 속삭임

김 형 진 (겸이 어머니)

창밖의 풍경은 너무 눈이 부시고  
그 속에서 행복한  
미소짓는 사람들

분주한 하루의 거리가 비어갈 때  
돌아서서 마주하는  
현실의 내모습

창백한 얼굴이  
네것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랬어

커다란 눈물이 네 것이  
아니기를 바래고 바랬어

어둡고 긴 터널이 끝날 때까지  
의심도 했었어

하지만 매일 밤  
너의 숨소리는  
내 귓가에 속삭였지

내일은  
꽃이 핀다고

내일은  
바람이 향기롭다고

누군가의 눈동자에  
우리가 있겠지

눈부신 풍경 속에  
행복한 미소 짓는 너와 나



\* 겸이는 2009년 4월 급성골수성백혈병으로 진단받고  
2010년 8월 제대혈이식 후, 현재 정기검사 중입니다. \*



## 매 순간의 행복을 느끼세요, 고지가 눈 앞에 있습니다!



### 이호연

1992년생  
2003년 급성골수성백혈병 진단  
2004년 치료종결  
현재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2학년 재학 중

매서운 바람과 푹 떨어진 기온 덕분에 '이제 정말 겨울이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이렇게 1년이 지났다라는 감회가 새로운 요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환자자 이야기를 쓰게 된 21살 이호연이라고 합니다. 사실 유쾌하지만은 않았던 제 경험을 말씀 드리는 것이 얼마나 우리 아이들과 가족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세상에 나만 이렇진 않구나.'라는 조그만 위안을 얻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몇 자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가을 운동회가 시작할 즈음에, 저는 편도선이 많이 부어 근처 대학 병원에서 수술을 위한 피검사를 했습니다. 1주일이 지난 후 병원을 다시 찾았을 때, 담당 선생님은 저를 내보내곤 어머니와만 무슨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머니는 10분, 20분이 지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분이 흐르고 어머니는 다급한 얼굴로 나오더니 제 손을 잡고 황급히 택시를 탔습니다. 다른 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뒤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응급실에 누워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어머니는 보이지 않고, 왠지 모르는 불안감에 무서웠던 것 같습니다. 이후 어머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선생님과 심각한 대화를 나눈 뒤 어디로인가 전화를 걸고 나서 제게 왔습니다. 그리고 제 손만 잡고 울었습니다. 저는 그냥 영문도 모른 채 가만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 근처 회사에서 근무 중이던 아버지가 왔습니다. 두 분이 무슨 심각한 얘기를 그리 하는지 저와는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자리를 비우고 이번엔 아버지가 누워있는 제게로 오더니 제 손을 꼭 잡고 우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아버지의 눈물을 보았던 저도 그냥 하염없이 따라 울었습니다.

저는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생생하게 그 장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 생애 가장 가슴 아픈 순간이 바로 그때

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게 그날 바로 병실에 올라가 입원하고 항암치료를 시작했습니다. 2차 항암치료가 끝날 즈음 언니와 남동생의 조직적합항원 일치 여부 검사가 진행되었고, 다행히도 저는 남동생의 것과 일치하여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병원에서 있었던 항암치료나 조혈모세포이식 같이 힘들었던 치료과정은 이제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지금 기억에 남는 것은 그런 상황에서도 웃으며 지냈던 병실 사람들, 그리고 점차 함께 웃으며 동화된 엄마와 저, 이들과 함께 쌓았던 추억들입니다. 항암치료 중간중간 집에 와서 짧은 휴식에 느꼈던 행복, 입원해 있을 때 친척, 친구들 방문에 반가워했던 마음, 이제 그 시절은 행복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모든 치료가 끝나고 저는 다시 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면역력이 좋지 않아 마스크를 두 장씩 쓰고 갔습니다. 학교에 가서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라는 인사로 형식적인 출석 확인만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점점 수기도 좋아지면서 오전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되었고, 6개월이 지나고는 모든 수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들과 친구들의 배려 덕분에 무사히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남녀공학이었지만 분반을 하였기 때문에 저는 여자 중학교와 비슷한 분위기에서 모든 반 아이들과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처음엔 모자를 쓴 제 모습이 부끄러웠고, 복도에서 마주치는 철없는 남자아이들의 한 두 마디에 상처도 많이 받았습니다. 사춘기에 들어서면서 짧고 술 적은 머리카락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스트레스도 받아 괜한 짜증도 부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만의 방법을 통해 자괴감, 자기비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친구들에게 다가가

고, 일부러 더 크게 웃기도 하고, 항상 긍정적인 에너지로 넘쳐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신기한 것은 친구들이 그런 저의 모습을 좋아해 주었고, 저도 제 스스로를 좋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가온 친구들에게 제 경험을 숨기지 않고 털어놓았고, 친구들은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더 좋아해 주었습니다.

중학교 3년은 제게 너무나도 소중한 즐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고등학교로 진학하면서 이제 저는 스스로조차 4~5년 전 아팠던 기억이 낯설어지고 정말 그런 순간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 건강해서 탈(?)인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진로를 정하고 목표로 한 대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한 번 큰 경험을 겪은 사람은 다른 일에 도전하는 데 있어 무섭거나 두려울게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은 많은 도전과 실패에도 굴하지 않고 달렸던 시간이었습니다. 이후 저는 원하던 대학교에 입학하였고 이제 내년이면 3학년이 됩니다. 현재 매 순간, 즐겁고 지루할 틈이 없는(?) 대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단 우체국 한사랑의집에서 투병 중인 소아암 친구들과 함께 종이공예 자원봉사활동을 하면서 소중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힘들었던 시간의 지나간 경험이 현재의 저를 만들어 주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이 왜 나에게만?' 이라는 생각으로 우울하고 견디기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그 순간이 지나면 그것을 발판으로 더욱 멋있어진 자신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소아암 치료를 받고 있는 우리 친구들! 주변의 소중한 행복을 모두 느끼고 매 순간 긍정적인 마음으로 지낸다면 고지가 눈 앞에 보일거예요. 힘내세요!

### 위대한 블로거란?

소아암에 대한 올바른 정보, 나눔에 대한 개인적 경험·생각 등을 자신의 블로그에 기재함으로써 온라인 나눔문화 확산에 힘쓰는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의 온라인 나눔 메신저입니다.  
황선민, 고영수 학생은 2012년 3월 위대한 블로거 2기로 선정되어 9개월간 소아암 어린이들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여 '우수 블로거' 로 선정되었습니다.



## 나눔의 가격표는 얼마?

위대한 블로거 2기 황 선 민  
장안대학교 3학년 재학 중



모든 것에 가격표가 붙여지는 요즘 시대. 청춘 또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 시대의 청춘은 시장에 내놓은 물건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었습니다. '취업'이라는 시장 속에서 '나라는 물건을 멋지게 꾸며야 했고, 꾸미기 위해서는 다양한 활동이 필요했습니다. 멋진 이력을 채워줄 활동 중 하나

가 바로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의 '위대한 블로거'였습니다.

초여름의 어느 날, 한강에서 서진이(소아암 어린이/가명)를 처음 만났습니다. 재단에서 하는 '소아암 어린이 완치기원 연날리기' 행사에 참여해 소아암 어린이 이야기를 블로그에 쓰기 위해서였지요. 바람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많이 불지 않았고, 내리쬐는 햇빛에 저는 조금씩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서진은는 그런 내 마음을 알았는지 먼저 다가와 참새처럼 말을 걸어왔고, 유난히도 저를 따랐습니다. 그런 서진을을 보니, 가만히 있을 수 없겠더라고요. 연이 더 높이 날 수 있도록 뒤에서 잡아주며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뛰어다녔습니다. 그렇게 소아암 어린이와 저의 첫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그날 서진의의 사랑스러운 눈빛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밖에도 벽화그리기, 컴퓨터 대청소 등 다양한 활동

을 하면서 화가도 만나고, 유치원 선생님도 만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던 중 제 친구가 떠올랐습니다. 그 친구는 빈곤가정 아이들을 위해 정기적으로 후원을 했고, 겨울이면 매번 연탄 봉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소극적인 성격으로 인간관계가 넓지 않았던 그 친구는 나눔활동을 통해서 성격도 활발해지고, 친구도 많아지는 등, 놀랄만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내심 그 친구가 부러웠지만, 한편으로는 그 친구의 활동들이 겉치레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친구가 느낀 행복과 나눔을 계속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낮은 곳에 가면 모든 감각이 뾰족하게 서는 것처럼, 저는 지금 '나눔'이라는 새로운 영역에서 온갖 감각들을 세우고 그 매력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치료과정에서 느끼는 고통의 1/100만쯤도 내가 대신해 줄 수는 없지만, 그 고통의 시간에 함께해 주는 것에도 이제 조금 자신이 생겼습니다. 따뜻하게 아이들을 위로하는 것에는 아직도 서툴지만, 저는 저만의 방식으로 아이들과 함께 있으려고 합니다. 위대한 블로거 활동은 이제 마치고, 블로거라는 세상에서 소아암 어린이들을 꾸준히 이야기 할 것입니다. 왜냐면 저는 이제 아이들 없이 웃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http://blog.naver.com/laugh811>

## 나눔 어떠냐고요? 일단 해봐요!

위대한 블로거 2기 고 영 수  
한양대학교 2학년 재학 중

대학생이 되고 처음에는 긴장해서인지 별 생각 없이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학교에 적응하게 되면서 문득, 지겹도록 배웠던 수학, 물리, 화학을 반복해서 배우며 고등학교 때와 다름없이 생활하고 있는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저는 다른 새로운 일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교실 밖의 강의를 듣고,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리는 기회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한 기회에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제가 모르던 이야기들이 있었고, 그 이야기에는 제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가치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치를 위해 함께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은 즐거워보였습니다. 자신과 상관없는 사람을 위해 시간을 나누고, 재능을 나누고, 돈을 나누는 사람들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시작한 활동이 바로 '위대한 블로거'였습니다.

'위대한 블로거' 모집 공지를 보았을 때, 어릴 적의 제가 떠올랐습니다. 소아암 같은 큰 병을 앓은 적은 없었지만, 허약체질로 병원을 늘 제 집처럼 오갔습니다. 그 때마다 너무 아팠고 무서웠습니다. 왜 내가 아파야 하는지 화가 나기도 했어요. 그런데 '소아암 어린이들은 얼마나 더 힘이 들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소아암 어린이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위대한 블로거'로 활동하며 만난 소아암 어린이들은 제가 생각했던 모습과 달랐습니다. 소아암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병이지만 극복할 수 있는 병이었습니다. 그런 소아

암과 싸우고 있는 어린이들은 저보다 강한 친구들이었습니다. 힘든 치료과정 속에서도 해맑게 웃는 모습, 자기 때문에 눈물짓는 엄마를 위로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더 많은 걸 얻고 깨달았습니다. 아이들 마음에 제가 도움이 되고 싶었는데, 오히려 그런 저에게 도움을 주는 아이들을 보면서 더 열심히 소아암 어린이 이야기를 썼습니다. 저와 같이 느끼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길 바라면서...



나눔을 시작하기 전엔 뭔가 크고 대단한 것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어 사실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나눔을 시작한지 2년이 넘어가는 지금은 다른 생각을 합니다. 나눔은 그렇게 어려운 것도 대단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큰 나눔도 있지만, 작은 나눔도 많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과 할 수 있는 것, 조금의 시간과 약간의 노력도 나눔입니다. 나눔을 하면 어떠냐고 많은 사람들이 제게 묻습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답하죠.

'같이 해볼래요? 일단 해봐요. 그리고 어땠는지 내게 말해줄래요?'

<http://blog.naver.com/rhdudtn0529>



겨울이 또 왔어요.  
그리고 나이도 한살 더 먹겠지요?  
걱정, 근심, 다 못한 일들, 책임질 일들...  
모두 데리고 갑니다.  
그래도 괜찮을 겁니다. 그렇지요? ^^

글·그림 소복이.  
sobogi.net



조혈모세포이식 시, 소아암 어린이 부모의 신체적, 정서적 어려움과 효과적인 대처방법

## 조혈모세포이식!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전문 간호사 **최 선 희**

엄마라면 누구나, 열 달 동안 사랑스런 아이를 뱃속에 품고 조마조마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태교하며 지낸 일을 생생히 기억할 겁니다. 그리고 산고 끝에 아이를 마주했던 기쁨 또한 생생히 기억할 겁니다. 어떤 책의 저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출산 과정에서 겪는 진통의 괴로움은 쾌감을 동반하는 불가사의한 괴로움입니다. 이 괴로움을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한마디로 규정하기에는 힘든 면가가 있습니다. 통증과 통증 사이에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긍정적으로 진통을 받아들여 아무리 괴로워도 산을 하나씩 하나씩 넘어 설 수 있습니다.

저는 조혈모세포이식도 이와 같은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머리를 삭발하고, 폐, 심장 검사를 하고, 히크만 카테터를 삽관하고, 한 달 동안 무균실에서 생활할 물품을 챙기고... 조혈모세포이식을 준비하는 부모님이 얼마나 분주하고, 정신없고, 도움이 필요할지 눈에 선합니다. 조혈모세포이식 전에 이미 아이들은 여러 가지 항암 치료 과정에서 있는 오심, 구토, 통증, 열, 피로, 점막염 등 합병증과의 전쟁을 한바탕 치렀을 겁니다. 이러한 과정을 다시는 반복하고 싶지 않겠지만, 우리 아이의 골수를 비우고, 건강한 공여자의 골수를 받아 잘 키우기 위해서 이 과정을 다시 겪어야만 합니다. 새로운 골수를 받아들일 새 집을 준비한다고 생각하고 기꺼운 마음으로 이 과정을 견뎌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와 간호사가 함께 이 과정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조혈모세포이식을 잘하기 위해 부모님 여러분!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 1. 조혈모세포이식 과정을 아이에게 설명해 주세요.

조혈모세포이식의 주인공인 어린이가 자신의 치료 과정을 잘 알 수 있도록 아이의 눈높이에 맞게 설명해 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혈모세포이식이 무엇인지, 이식 과정에서 어떤 것들을 겪게 되고, 퇴원은 언제

하게 되는지, 퇴원 후에는 병원에 얼마나 자주 오게 되는지 등 아이가 조혈모세포이식과 관련된 밑그림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연령대에 맞는 그림과 자료로 이해시켜 주고, 치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해주세요.

### 2. 생활계획표를 작성하세요.

아이와 함께 생활계획표를 작성하세요. 회진시간, 밥 먹는 시간, 약 먹는 시간, 양치질하는 시간, 좌욕 시간, 컴퓨터 시간, 운동 시간, 책 읽는 시간 등을 배정하도록 합니다. 자기 전에 꼭 하루를 마감하는 일기를 쓰거나, 종교가 있는 분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부모님도 규칙적인 생활을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음식은 소량으로 자주 먹고, 반드시 스트레칭을 합니다. 스트레칭이 부족할 시, 위경련이나 근육통, 요통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 3.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가족들에게 매일 '고맙다,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가족, 친구, 친척, 이웃들과 응원 메시지(문자, 이메일, 전화 등)를 주고받으세요. 어쩌면 알리고 싶지 않아 세상과 담을 쌓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격려받는 것은 부모님 뿐만 아니라 아이에게 큰 힘이 됩니다.

조혈모세포이식이라는 과정이 어둡고 끝날 것 같지 않은 터널 속처럼 느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잘 준비하고, 잘 마쳐서, 아이의 새로운 삶이 시작될 두 번째 생일로 맞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새로 태어난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으로, 학교로 돌아가서, 어려웠던 그 시간을 밑거름으로 보람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낼 것입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고, 먹고 싶은 것을 먹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이 세상을 다 갖게 되도록 우리 모두 함께 응원합니다.





## 마음이 아플까봐

글·그림 : 올리버 제퍼스 역 : 이승숙  
출판사 : 아름다운 사람들

### >> 소개의 글

세상에 대한 호기심으로 가득 찬 한 소녀의 곁에는 언제나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소녀에게 할아버지는 세상과 소통하는 창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마음의 준비도 없이 소녀는 할아버지를 잃고 맙니다. 소녀는 너무도 두려운 나머지 그만 마음을 떼내어 유리병에다 넣고 맙니다. 마음을 유리병에 가두자 마음은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흘러 소녀는 우연히 호기심 많은 아이를 만나게 됩니다. 아이의 질문을 받는 순간 소녀는 마음을 꺼내고 싶었습니다. 소녀는 유리병에서 어떻게 마음을 꺼냈을까요?

‘마음이 아플까봐’는 아픈 마음의 의미에 대해 말하는 성장 동화입니다.

호기심 많은 소녀는 감당할 수 없는 아픔과 맞닥뜨리자 그것을 극복하기보다 세상과의 단절을 선택합니다. 그것은 세상을 향한 수많은 호기심들과 수많은 가능성들에게서 도망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다 어릴 적 자신을 닮은 호기심 많은 작은 아이가 마음을 열어 주어 소녀는 다시 어릴 적 품었던 수많은 호기심들과 만났고, 드넓은 세상과 소통하기 시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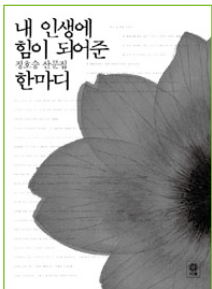
이야기 속에서 작가는 조용히 묻습니다. 상처받지 않기 위해 숨을 것인지, 그 아픔을 이겨내며 드넓은 세상의 주인이 될 것인지를 말합니다.



## 내 인생에 힘이 되어준 한마디

글 : 정호승 출판사 : 비채

### >> 소개의 글



살아오면서 자신에게 힘이 되는 말 한마디, 문구 한 구절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닌듯한 말들이 어느 순간 죽비처럼 가슴과 머리를 때릴 때가 있습니다. 절망의 문턱에서 허우적거릴 때, 반복된 일상에서 의미 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을 때 누군가 던진 한마디가, 어디선가 읽은 한 구절의 글귀가 큰 위안과 용기를 안겨주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책은 저자가 살면서 겪은 소중한 말들, 힘들 때마다 꺼내어 마음속에 새기거나 읽으면서 인생의 물과 밥으로 삼은 귀한 말들을 모은 책입니다. 단순히 격언을 모으거나 좋은 말을 모은 책과는 차원이 다른, 삶이 묻어나고 진심이 담긴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 KCLF

# 신규 후원자 소식

2012. 9. ~ 2012. 11.

소아암 어린이들의 든든한 후원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정기후원

강민주 강준희 권두남 권은영 권지현 김경호 김대선 김명숙 김명애 김명옥 김민영 김상민 김수근 김원기 김유경 김유진 김윤희 김이브 김정찬  
김지현 김현주 김희성 나지원 남승복 노수신 마신혁 모선아 문수윤 박영택 박은중 박찬민 박효진 반재광 배지숙 서미라 서민정 서영익 서유진  
서현주 신원정 신재우 심갑순 심동욱 심지혜 안혜영 양은준 양재은 양혜진 여용균 오세영 오인정 왕현주 원은경 윤지영 이경순 이미숙 이상희  
이용수 이재호 이주현 이창화 이혜정 이혜지 이화진 임보람 장은정 전제결 전진미 정경진 정선하 정성진 정성훈 정승준 정재연 진윤주 최영자  
홍제윤

## 일시후원

고민재 권대훈 김규빈 김명환 김미선 김선옥 김영규 김영빈 김유리 김유화 김정수 김지연 김진식 김형수 노정숙 문정미 민기연 박경득 박신엽  
박종미 송태우 신용익 이우경 이은정 이재열 임무승 장영후 장진선 장현석 장호익 정미숙 정상복 정진자 조상빈 조승미 최예준 최지선 한미숙  
홍현의 황선이 용인건강가정지원센터 이성춘(남도갈비) 이승환23주년 이창석(티나음향) 준이연서

## 후원물품

헤이지희모 싹 김경민 고구마 김도윤부 이브콘 김민규 차류 드림팩토리 TV 박경훈 이불 삼성물산 프로그램비 서준원 과자 이윤경 과일 전준호 과일  
삼성생명여의도지점 프로그램비 정수현 음료수 조현 장난감 한국남동발전 생필품 한국남동발전건설총괄팀 온누리상품권 한영창 과일 DC송중기갤러리 샵

## 헌혈증 (매)

박남수(30) 박시만(138) 박정희(50) 박진성(8) 박현희(6) 방지원(39) 서영운(21) 신문기(7) 오세진(86) 이동원(2) 이재호 공현(50) 정동민(8) 정상봉(5)  
채성석(11) 최재일(10) APT종로점(220) CJ대한통운(500) EXT(5) STX마린서비스(67) 삼성증권 분당지점(30) 서울사이버대학교(61) 이마트 중동점(11)  
원더걸스 팬클럽 다정다감(100) 자율소프트(4) ㈜넥스(137) 한국산업인력공단 강원지사(9) 한국전력공사 통영지사(2)

## 2012년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발급안내

### (1) 개인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기부금 영수증 발급 대상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필수항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빠르고 정확한 영수증 발행을 위해 개인정보를 확인하고,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해 12월 30일 까지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단 홈페이지 내 기부금 영수증 출력 방법 (2013년 1월 8일부터 출력가능) : 홈페이지 로그인 후 나의정보 → 기부금 영수증 출력에서 2012년 내역 선택

### (2) 기부금영수증,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www.yesone.go.kr)에서 조회, 발급 받으세요!

2013년 1월 15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편리하게 조회 및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기부금영수증 우편 발송은 중단되오니, 이용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후/원/계/좌

국민은행 : 001-01-2353-890

신한은행 : 140-000-762725

우 체 국 : 012989-01-003327

농 협 : 029-01-176943

우리은행 : 112-04-112571

하나은행 : 144-121835-00105

예금주 : (재)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 KCLF

지원 결정  
환아

2012. 9. ~ 2012. 11.

이식비	재활치료비
<p><b>농업협동조합중앙회</b> 채예원(흉문근육종/서울아산병원) 800만원</p> <p>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동양생명보험(주) 각 1,000만원 박세진(혈구탐식성조직구증식증/서울성모병원) 황창승(골수이형성증/서울성모병원)</p> <p>(주)이베이코리아 옥션 각 2,000만원 김상일(생식세포종/국립암센터) 박예준(급성골수성백혈병/서울아산병원) 이찬민(판코니빈혈/영남대학교의료원)</p> <p>2012MBC어린이에게새생명을 박재연(급성림프모구백혈병/서울아산병원) 1,500만원</p>	<p><b>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b> 남동철(상의세포종/삼성서울병원) 300만원</p> <p><b>해피빈</b> 각 300만원 신연우(신경모세포종/삼성서울병원) 조명준(뇌종양/영남대학교의료원)</p> <p>(주)토탈소프트뱅크 이나경(흉문근육종/부산대학교병원) 300만원</p> <p><b>AFC(한불친선협회)</b> 조현주(망막모세포종/대구파티마병원) 80만원</p>
	치료비
<p><b>KB금융그룹, 사회복지공동모금회</b> 곽우진(난황낭종양/서울대학교병원) 1,500만원 김보경(급성림프모구백혈병/한양대학교병원) 2,000만원</p> <p><b>KT&amp;G, 사회복지공동모금회</b> 김장휘(급성골수성백혈병/해운대백병원) 1,000만원 남효진(중증재생불량빈혈/화순전남대학교병원) 300만원 박정빈(상의세포종/서울아산병원) 1,000만원 이은선(유잉육종/삼성서울병원) 1,500만원 최승범(이차성골수성백혈병/삼성서울병원) 1,000만원</p> <p><b>이식비기금</b> 남효진(중증재생불량빈혈/화순전남대학교병원) 700만원</p>	<p><b>농업협동조합중앙회</b> 원윤하(신경모세포종/서울대학교병원) 800만원</p> <p>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동양생명보험(주) 정준우(배아세포종/세브란스병원) 700만원</p> <p><b>삼성SDS</b> 각 500만원 김경미(호지킨림프종/화순전남대학교병원) 김태후(급성림프모구백혈병/삼성서울병원) 양지호(버킷림프종/삼성서울병원) 윤선우(급성림프모구백혈병/경북대학교병원) 장현규(간모세포종/국립암센터)</p>

<p><b>삼성필하모닉오케스트라</b> 각 500만원 김지영(골육종/경북대학교병원) 김태현(재생불량빈혈/화순전남대학교병원) 박동희(급성림프모구백혈병/국립암센터) 최지혜(급성골수성백혈병/서울아산병원)</p>	<p><b>우정사업본부</b> 각 300만원 김경민(급성골수성백혈병/삼성서울병원) 김태현(재생불량빈혈/화순전남대학교병원) 노호영(급성골수성백혈병/서울대학교병원) 박동희(급성림프모구백혈병/국립암센터) 신하균(중증재생불량빈혈/서울성모병원) 이민호(수모세포종/삼성서울병원) 이준범(급성림프모구백혈병/서울성모병원) 최지혜(급성골수성백혈병/서울아산병원)</p>
<p><b>홍명보장학재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b> 김태현(재생불량빈혈/화순전남대학교병원) 100만원 최홍기(급성림프모구백혈병/경북대학교병원) 400만원</p> <p>(주)농수산소싱 각 1,000만원 김경민(급성골수성백혈병/삼성서울병원) 김정애(골육종/원자력병원)</p>	<p>(주)아놀자 각 500만원 박수민(급성림프모구백혈병/서울대학교병원) 허수은(급성림프모구백혈병/부산대학교 어린이병원)</p>

**2012MBC어린이에게새생명을**

- 김건옥(뇌종양/부산대학교병원) 300만원
- 김정애(골육종/삼성서울병원) 800만원
- 박광수(급성골수성백혈병/서울아산병원) 500만원
- 박재연(급성림프모구백혈병/서울아산병원) 400만원
- 방정현(뇌종양/삼성서울병원) 600만원
- 윤선우(급성림프모구백혈병/경북대학교병원) 600만원
- 이재영(급성골수성백혈병/삼성서울병원) 800만원
- 장현규(간모세포종/국립암센터) 500만원
- 황창승(골수이형성증/서울성모병원) 690만원

**KB국민은행**

- 손여선(유양육종/고신대학교 복음병원) 500만원

**KB금융그룹,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박정용(호지킨림프종/서울성모병원) 800만원

**KT&G,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김지선(혈구탐식성조직구증/서울대학교병원) 1,000만원
- 김태양(신경모세포종/삼성서울병원) 700만원
- 이체원(급성림프모구백혈병/삼성서울병원) 800만원

**LG전자(주)**

각 1,000만원

- 노호영(급성골수성백혈병/서울대학교병원)
- 이한주(만성육아종증/서울아산병원)

**간접치료비**

일시 간접치료비

**나서영 후원자**

- 황창승(골수이형성증/서울성모병원) 100만원

**모닝코리아**

각 100만원

- 김현애(급성림프모구백혈병/부산대학교 어린이병원)
- 손여선(유양육종/고신대학교 복음병원)

**우정사업본부**

각 100만원

- 김정애(골육종/삼성서울병원)
- 노우주(악성림프종/부산대학교 어린이병원)
- 박성규(급성림프모구백혈병/서울성모병원)
- 박정용(호지킨림프종/서울성모병원)
- 방정현(뇌종양/삼성서울병원)
- 이재영(급성골수성백혈병/삼성서울병원)

**(주)태진인터내셔널**

각 100만원

- 노호영(급성골수성백혈병/서울대학교병원)
- 서태환(급성림프모구백혈병/서울대학교병원)

**익명 후원자**

- 손수아(신경모세포종/화순전남대학교병원) 월 10만원

**정기 간접치료비(신규)**

**기업은행노동조합**

- 김강현(급성림프모구백혈병/세브란스병원)
- 김민지(급성림프모구백혈병/서울성모병원)
- 김희인영(급성림프모구백혈병/서울성모병원)
- 박창주(소원형세포종양/원자력병원)
- 최진혁(급성림프모구백혈병/서울아산병원)

**양진의료재단**

- 유희찬(급성림프모구백혈병/서울대학교병원)

**케이엘넷**

- 이준범(급성림프모구백혈병/서울성모병원)

**한엔터테인먼트**

- 김가윤(급성골수성백혈병/해운대백병원)

**익명 후원자**

- 김경민(급성골수성백혈병/삼성서울병원)
- 원윤하(신경모세포종/서울대학교병원)
- 최홍기(급성림프모구백혈병/경북대학교병원)

**가발**

**하이모**

- 김경미(호지킨림프종/화순전남대학교병원)
- 김예은(윌름스종양/서울성모병원)
- 김지안(수모세포종/삼성서울병원)

**NH농협카드**

- 곽성규(만성육아종증질환/서울대학교병원)
- 김광원(급성림프모구백혈병/서울성모병원)
- 문지모(골육종/서울대학교병원)
- 박창주(소원형세포암/원자력병원)
- 심아린(중증재생물량빈혈/서울성모병원)
- 윤여준(골육종/국립암센터)
- 윤지인(뇌종양/경상대학교병원)
- 이나경(골육종/원자력병원)
- 최보경(재생물량빈혈/서울성모병원)

## 한사랑의집에서는

### 전남 우체국 한사랑의집

#### 우체국금융개발원 맥가이버 출동



지난 9월과 10월, 우체국금융개발원 봉사자들이 다녀갔습니다. 어긋난 씽크대 문짝, 갈라진 욕실 타일, 벌어진 기와, 보기 싫게 철이 벗겨진

외벽 등 이곳저곳을 꼼꼼하게 수리하여, 전남 한사랑의집이 새로운 보금자리로 거듭났습니다. 곳은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활동하는 내내 즐거운 얼굴과 마음을 나눠준 우체국금융개발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부산 우체국 한사랑의집

#### 공연의 계절 가을에 흠뻑 빠지다



10월 21일, 28일 소아암 어린이 가족들은 '번개맨의 비밀'과 '마리오네트' 두 차례 공연을 보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아이들은 번개맨과 함께 신나는 번개체조를 하며 활짝 웃었고, 마리오네트를 보며 어깨를 들쩍이며 환호했습니다. 가슴 속에 있던 흥을 맘껏 내보였던 시간이었습니다.

\* 본 프로그램은 NH농협카드 후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 우리들의 친구 다람이



2011년 12월부터 시작된 유아 대상 소아암 교육 인형극인 '우리들의 친구 다람이'가 지금까지 총 12개 유치원에서 1,042명의 어린

이들 앞에서 상연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인형극이 끝나면 큰 목소리로 소아암 어린이에게 '힘내! 우리가 같이 할게!'라고 하며 응원을 보냅니다. 이 목소리들이 점점 커지길, 그리고 소아암 어린이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때 큰 힘이 되길 기대합니다.

\* 문의 051) 244-7677

### 서울 우체국 한사랑의집

#### 전통놀이와 함께 한 추석



소아암 어린이 가족들을 위한 추석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윷놀이와 투호놀이, 활쏘기... 작은 공간에서 기구들은 어설퍼지만 열기만큼은 올림픽 경기 못지않게 뜨거웠습니다. 전통놀이 후 먹은 치킨과 피자 맛은 꿀맛이었다는 후문입니다. 제법 풍성했던 추석, 여러분도 행복하셨죠?

\* 본 프로그램은 삼성생명 여의도지점 후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 이문초등학교 1학년 3반의 예쁜 나눔



예뻐도 너무 예쁜, 기특해도 너무 기특한 이문초등학교 1학년 3반의 특별한 나눔이 있었습니다.

이문초등학교 1학년 3반 친구들이 소아암을 주제로 배우고, 연극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극을 통한 수익금과 마음을 담아 정성스럽게 쓴 카드를, 담임 선생님과



가위, 바위, 보로 특별 선발된 4명의 친구들이 직접 방문하여 전달해 주었습니다. 카드에는 이문초등학교로 꼭 오라는 말, 사랑한다는 말, 힘내라는 말, 기도한다는 말... 아이들의 따뜻한 마음이 담뿍 담겨 있었습니다.

소아암 치료를 받고 있는 우리 친구들, 이문초등학교 1학년 3반 친구들의 응원 덕분에 더 용기를 갖고 씩씩하게 치료받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 ‘맨 오브 라만차’ 관람

11월 17일, 소아암 어린이 가족 83명이 뮤지컬 ‘맨 오브 라만차’를 관람하였습니다. 젊은 청년과 흰 수염 할아버지, 1인 2역을 멋지게 소화해 내는 배우의 모습에 감탄하고, 그들의 웅장한 노래에 감동했습니다. 참여한 소아암 어린이 가족들은 멋진 가을의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 본 프로그램은 NH농협카드 후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 신촌 우체국 한사랑의집

### 한지붕 여러 가족

신촌 한사랑의집은 한 지붕 여러 가족입니다. 많을 때는 6가족이 복닥거립니다. 그런데 낮에는 조용합니다. 왜냐고요? 저마다 병원치료를 받으라 바빠서 아무도 없을 때가 많거든요. 그리고 저녁이 되면 하나, 둘, 새둥지 찾듯 돌아오고, 그 때부터 부엌의 요리 냄새, 사람의 온기, 복닥거리는 소리가 가득해집니다. 밤이면 현관에 신발이 가득해지는 곳, 그리고 활기찬 곳, 그곳이 우리 한사랑의집입니다.

## 대구 우체국 한사랑의집

### 김장이요!



겨울이 되면 쉼터는 어떻게 지내는지 항상 안부를 전하는 대구 우체국에서 올해는 정성가득 김장을 직접 담아 보내주었습니다.

추운날 씨에도 직접 발로 뛰어다니며, 좋은 재료를 구해서 맛있고 건강에 도움이 되는 김치가 되기를 바라며, 직원 분들이 소아암 어린이 가족을 위해 직접 만들었다고 합니다.

김장에 담긴 많은 분들의 따뜻한 손길에 마음 든든해지는 겨울입니다. 고맙습니다!

### 현이의 도네이션



일 년 동안 매주 얼굴을 보며 정이 듬뿍 든 현이의 마지막 미술치료 날, 어느 때보다도 당차게 문을 열고 들어오며 "선생님, 이거 제가 도네이션하는 거예요!"라고 외칩니다. 현이가 아끼는 장난감 중 심사숙고하여 고른 공룡퍼즐이었습니다.

7살 아이의 얼굴에 후원자의 뿌듯한 미소가 가득합니다. 벌써부터 나누는 기쁨을 아는 기똥찬 녀석입니다. '현아, 네 공룡퍼즐 쉼터 친구들에게 인기 짱이야! 고마워!'

# KCLF 희망소식

## 기업은행노동조합, 용감한아이(I) 통장 후원



1996년부터 16년 동안 정기 간접치료비를 지원해 오고 있는 기업은행노동조합이 올해 용감한아이(I)통장 사업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아이들의 치료과정을 변함없이 지켜준 기업은행노동조합이 용감한아이 통장을 통해 다시 한 번 치료 받는 아이들에게 큰 용기와 격려를 전합니다.

## 신한동해오픈골프대회 후원금 전달



신한금융지주에서는 10월 11일 ~14일, 신한동해오픈골프대회를 개최하여 선수 상금의 일부분과 입장 티켓, 희망나눔 쿠폰 판매금액을 치료비로 후원하였습니다. 신한금융지주와 함께 나눔에 참여한 선수, 갤러리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이승환 홍보대사 차카게살자 공연



재단의 홍보대사 가수 이승환씨는 2001년부터 매년 차카게살자 콘서트를 열어 치료비 지원, 장학금 지원, 나무심기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차카게살자 콘서트 수익금과 개인 후원금을 모아 재단으로 전달해 주었습니다. 오랜 후원자이자 홍보대사인 이승환씨, 그리고 함께 나눔에 동참해 주는 많은 팬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 EXR 차카게살자



이승환 홍보대사 차카게살자에 동참한 의류브랜드 EXR이 후원금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나눔에 동참한 EXR에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 전인CM

전인CM이 임직원과 회사가 함께 모은 저금통과 현혈증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전인CM의 아름다운 나눔 활동에 감사드립니다.

## LG전자

매년 임직원 헌혈행사를 통해 치료비를 후원하고 있는 LG전자가 올해에도 소아암 어린이 돕기에 나섰습니다. 'Life's Good Day 헌혈캠페인!'을 통해 임직원이 헌혈을 할 때마다 헌혈증 1장당 1만원, 네티즌이 SNS를 통해 응원 댓글을 달 때마다 1천원을 적립하여 두 명의 소아암 어린이에게 치료비로 전달하였습니다.

## 외환은행나눔재단



외환은행나눔재단은 2009년부터 소아암 어린이 교육을 위한 컴퓨터 지원, 재활치료비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후원하였으며, 올해에는 소아암교육 프로그램 제작을 후원하였습니다.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하는 외환은행나눔재단에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 하나대투증권 협약식



하나대투증권은 기부를 위한 금융 상품을 마련하여, 이를 통해 발생하는 상품보수 및 수수료 일부를 고객의 이름으로 후원하는 나눔 협약을 재단과 체결하였습니다. 소아암 어린이를 위한 나눔을 시작한 하나대투증권에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 스타를 사랑하는 또 하나의 방법

- 가수 율랄라세션 팬클럽인 '율랄라센세이션'에서는 멤버 임윤택씨의 에세이 '안 된다고 하지말고 아니라고 하지 말고' 12권을 기부해 주었습니다.
- 가수 f(x) 팬사이트 연합에서는 f(x) 데뷔 3주년을 기념하여 소아암 어린이 돕기 후원금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 배우 송중기 팬클럽인 'DC송중기 갤러리'에서는 쉼터 가족들을 위한 쌀 100kg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 스타를 사랑하는 마음을 나눔으로 실천하는 팬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 배우 송중기 후원금 전달



2011년부터 소아암 어린이와 인연을 맺고 있는 배우 송중기씨가 다큐멘터리 남극의 눈물 나레이션 출연료 전액을 후원해 주었습니다. 배우 송중기씨께 감사드립니다.

### 소아암어린이 제주체험 푸른바다 희망충전



지난 9월 26일~28일, 소아암 어린이 가족 36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7회 제주체험이 진행되었습니다. 본 행사를 통해 소아암 어린이와 가족들은 치료 기간 동안 지쳐있던 마음에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었습니다.

\* 본 행사는 한국관광공사, 제주신라호텔 후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 삼성SDS 1m1원 마라톤 기금 전달

삼성SDS 임직원들은 1997년부터 '소아암 어린이 돕기 1m1원 마라톤'을 통해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5명의 소아암 어린이에게 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해마다 행사를 준비하고 마라토너로 참가하는 삼성SDS 임직원 여러분의 땀과 완치염원이 담긴 따뜻한 사랑은 소아암 어린이 가족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삼성SDS 임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NH협카드 소아암 어린이 후원금 전달



지난 10월 8일, NH협카드의 후원금 전달식이 진행되었습니다. NH협카드는 소아암 환자 가족들의 치료의지 향상을 위해 문화예술체험, 가발, 놀이치료를 지원합니다. 고객과 함께 나눔을 실천하는 NH협카드 여러분 감사합니다.

### 삼성필하모닉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삼성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매년 정기연주회를 통해 치료비를 모금하여 전달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10회를 맞는 삼성필하모닉오케스트라 단원 여러분과 후원에 동참하는 삼성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소아암 정보 스마트폰으로 만나세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소아암 정보'가 출시되었습니다. 이제 모바일과 태블릿에서도 '진단명별 소아암 정보(14종)'와 '간병을 위한 도움 정보(6종)'를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현재는 아이폰, 아이패드용으로만 출시되었으며, 2013년에는 안드로이드 버전도 개발 예정입니다.

### 소아암 어린이 사진전 다시 오는 봄



제4회 소아암 어린이 사진전 <다시 오는 봄>이 11월 7일부터 13일까지 경인미술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전시에 10명의 어린이가 참여하였고, 일반 시민들에게 소아암 어린이들의 밝은 모습을 보여주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 도록판매 권당 1만 원, 신청 02) 766-7671

### 완치자와 함께한 가을 나들이



11월 3일 토요일, 지역별 완치자 모임이 진행되었습니다. 완치자들은 서로를 격려하고, 현재 치료 받고 있는 소아암 어린이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 주거환경개선 지원

재단에서는 2007년부터 치료과정의 특성상 감염 위험이 높은 소아암 어린이의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하여 치료효과를 높이고자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소아암 어린이 76가족에게 주거환경개선 물품(침구살균청소기 외)을 지원하였습니다.

\* 본 사업은 KB금융그룹 후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한사랑 문화체험



9월로 예정되어 있었던 문화체험이 태풍으로 인해 연기되어 11월 11일~12일, 에버랜드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40가족 142명이 모여 행복한 추억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 본 프로그램은 우정사업본부 후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나을 수 있다는 마음 나아질 거라는 믿음

소아암 어린이들이 더 행복해지길 바라는 모두의 마음을 모아  
소아암 전문지원센터 '나움'을 만듭니다.

2014년 건립 예정인 나움은  
소아암 가족을 위한 상담과 전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를 통합한  
국내 최초의 소아암 전문지원센터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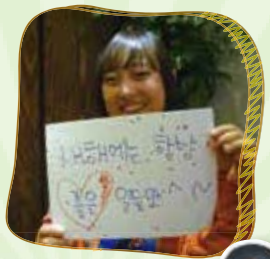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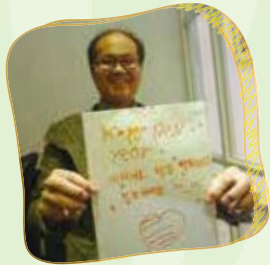
소아암 어린이들의  
더 행복한 미래를 위해  
나움센터 건립 모금에  
참여해 주세요!

- ARS후원 060-700-0100  
전화 한 통에 2,000원의 센터 건립기금이 적립됩니다.
- 후원문의 02-766-7671  
02-766-7671  
<http://naum.kclf.org>  
[cancer@kclf.org](mailto:cancer@kclf.org)



\*나움 홍보대사 임영자 소아암 치료중인 김보미, 이예나, 조동현 어린이

완치자들이 여러분에게 새해 희망 메시지를 전합니다.



2012년 겨울호는 KB \*b 국민은행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발행인 / 오연천 편집인 / 서선원 발행처 / (재)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주소 / 110-524 서울시 종로구 명륜동4가188-14 인설빌딩 4층 전화 / 02)766-7671(대) 팩스 / 02)766-7674

www.kclf.org cancer@kclf.org